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세울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처!

오온이 공한 도리를 알려면

질문 “생사윤회를 벗어나 자유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어떤 스님께 질문을 드리니 “오온이 공한 도리를 알아야 내가 공해서 나밖의 외부 세계도 없고, 외부 세계가 없기에 이 세상이다 저 세상이다 하는 구분마저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알쏭달쏭합니다. 이 오온이 공한 도리를 알려면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할까요?

답변 불법이라는 것이 밥해 놓고 떡 해 놓고 고사를 지내고 부적을 하고 또는 절을 치고 이러한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모든 게 갖추어져 있고, 자신이 바로 일체 만법의 마음을 낼 수 있는 자연의 ‘자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악과 선을 다 몽땅 공에 놔 버린다면’ 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나 하면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고정되게 먹는 것도 없지만 고정되게 듣는 것도 없습니다. 고정되게 가고 오는 것도 없고 고정되게 말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세울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그 도리를 알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체가 없기 때문에, 이 육신은 한계가 있지만 자신의 부처는 수만 개가 됐다거나 수천 개가 됐다거나 하나도 없기도 합니다.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 나라고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진실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타의에서 구하고 타의에서 찾고 또 부처에 의존하고 남의 말에 의존하는 그런 습성은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 습성이 자라면 자라는 대로 우리가 겁테기를 벗는다 할지라도 그 습이 남아 흔이 돼서 유체로서 남의 집을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남을 해치게 되는 경향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만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선으로만 생각해도 선에 걸리기 때문에 바로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악에 치달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도 선도,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죄가 없겠지.’ 하는 것도 걸리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못함이 없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이러한 마음을 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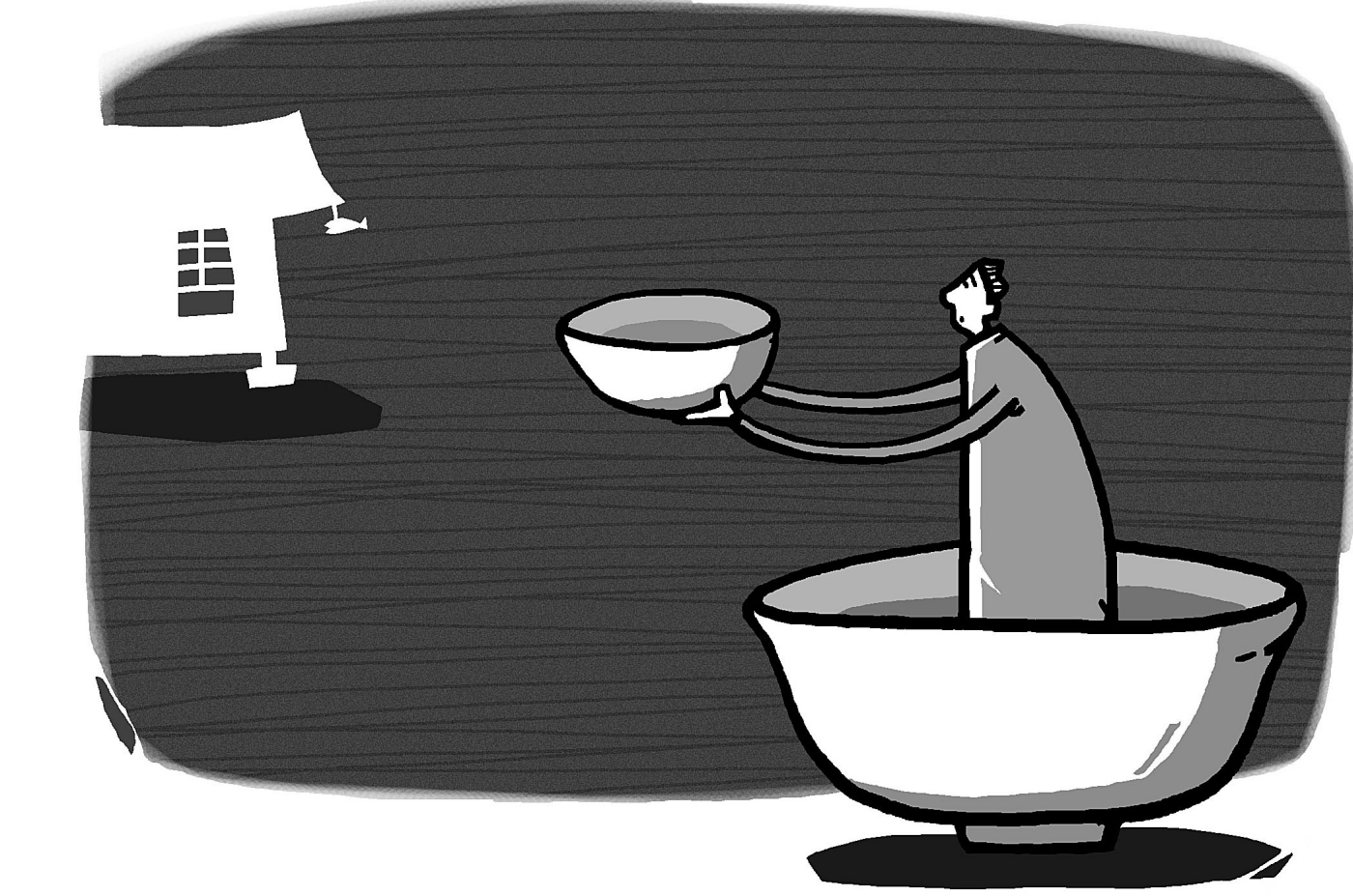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는 것도 바로 걸리는 마음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마음도 없고 잘하고 있는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체가 없기 때문에, 또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열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알았을 때 바로 더불어 같이 알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이 나를 알기 위해서 나를 몽땅 놔 버려야만 하는, 사대(四大)와 오온(五蘊)이 공한 그 뜻을 안다면 바로 여러분과 나와 더불어 같이 공해서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나와 같이 죽어서 같이 나누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열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 우주 만물에 대한 거집없는, 걸림 없는 활용으로 서로 상응케 하면서, 같이 한마음으로 그 능력을 서로서로 쥐 가면서 여여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有)의, 이 색상의 범으로서 잘한다고 하지 마는 그것은 한계가 있고 너무도 모자라

다. 지금 시대가 돌아가는 걸 잘 보십시오. 어떻게 모자라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한 말씀 드린 걸, 지난번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어느 스님께 제자가 말씀드리기를 “고기가 고기로 보여서 못 먹겠습니다.” 하니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수에 백살을 넣어서 백수탕을 해 오너라.” 했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느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말없이 말을 해야 하고 말을 하면서도 말을 하지 않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여러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것을 모르신다면 자기 주인공에, 바로 마음속에 넣고 굴리면서 의정을 내 보십시오.

그리고 옛날에 우리 문중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지금 차에 치여서 녹막염이 들었는데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는지, 병원에 가도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서 6년 7년이나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병이 나니깐 어쩔 수가 없이 뭐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산토끼를, 시장에 가면 있으니 그걸 마늘을 넣어서 푹 고아서 잡수시오.” 하니 그 스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살생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고기를 먹어서 쓰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어떻게 말을 할 줄을 몰라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 토끼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과 들어 아니요, 그 토끼의 몸이 내 몸과 들어 아니니 즉석에서 요리를 한다면은 바로 그 맛을 알고, 맛을 아는 반면에 그 육신은 바로 약이 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모두가 들어 아니고 모든 생명이 들어 아니라면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고,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몸과 같이 들어 아니고 사랑하기에 또 그 고기를 먹어야 하고 살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살생이 아니라 무명만 바

꿔 놓을 뿐이지, 그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살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체험을 해 보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귀동냥이나 해서 말을 한다면 이걸 진실이 못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마음의 불을 켜야만 됩니다. 마음의 불을 안 켜고, ‘내가 절에 갔다 오면 고만이지.’ 그것도 ‘잘되게 해 주시오, 이렇게 해 주시오, 저렇게 해 주시오.’ 하고 다니는 것만이 불법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바로 내가 공부하는 길에서 자연히, 내가 똑바로 나가고 일심으로 나가는 반면에 일심 자체도 없다는 도리를 알 때에 비로소, 나는 몰라도 그 가정이 화합이 되고 융화가 되고 또 아주 조화가 돼서 잘 돌아가면서 아픈 거라든가 가난이라든가 그런 것은 스스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파서 급해서 왔는데 뭐 팽푹 같은 소리를 하고 속으로 중얼중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픈 거나 가난은 면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것이 묘법이며 우리가 자유자재할 수 있는 법입니까.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질문 집주인이 집세를 올려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10년 가까이 살던 곳을 떠나서 서울 외곽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 삼재가 들어서 이사를 무사히 하려면 비싼 부적을 사서 집에 붙여야 한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집안 살림도 어려운 형편에 그분의 말을 따라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답변 여러분 중에는 동서남북 방위를 보고, 무슨 동쪽이 막혔으니까 이사를 못 가고 뭐가 어떻게 돼서 못 가고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못하는 게 많아요? 그렇게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들여 부적을 해서 부엌에 안 붙이나 마루에 안 붙이나, 방에 안 붙이나 대문 바깥에 안 붙이나, 배계 속에 안 붙나 요 속에 안 붙나, 몸에 지니고 안 다니나, 도대체 그게 뭐 말라빠져 죽은 겁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밀고 나갈

26면으로 계속

수행도우미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차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感 체험
	자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활~
	보디스킨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 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면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주인공이 하는 것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것도 없습니다

25면에서 계속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은 갈대같이 흔들립니까? 그것을 듣는 놈은 누구고 그렇게 말해 주는 놈은 누구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은 발바닥에 흙을 안 묻히고 다닌답니까? 자기보다도 더 부족한 사람들에게 물으러 다닌다면 귀신 짓이다 이겁니다.

사람이 마구니 짓을 안 한다면 마구니 어디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방생하러 다닌다고 놀부 짓이나 하는데 말입니다. 길을 오가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떠한 생명을 보거나, 길거리에서 앉아서 돈을 달라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 무주상 보시나 물질 보시의 방생을 해야 하고, 밥을 굶어서 애를 쓰는 가정 이 있거나 또는 학비를 못 내서 애들을 학교에 못 보낸거나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십시일반으로 거둬서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살아 있는 사람이 왜 죽은 행을 합니까? 살아 있는 사람이 어떤 생동력 있게 살아 있는 행동을 해야죠.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항상 흐뭇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요?

마음이 너무 뻘뻘한 것 같아요

질문 가정에서나 친구 간에 저도 모르게 뻘뻘한 말이 나가서 상대를 아프게 만들어 버립니다. 속이 넓지 못하고 응졸한 것이 돌아간 할머니를 닮아서 그렇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의 내면 의식이 바뀌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그전에 제가 산중에 이렇게 돌아다닐 때 보니까, 바람이 휩 부니까 향기가 휘 나면서 꽃 속에 있는 그 꽃가루가 날아서 저쪽 나무의 꽃 속으로, 그 열매 속으로 들어가서 열매의 그 종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묘한 겁니까, 세상에, 그 꽃가루가 바람에 날려서, 그게 우연이라고 봅니까? 아닙니다. 대자연입니다. 거기 가서 그 꽃가루가 묻는 대로 그 종이 죽더라는 얘깁니다. 녹아서 물로 떨어져요. 죽으면 그게 언제 아침 이슬에 다 녹아 떨어집니다.

그렇게 서로 협동심이 있고 전부 조화를 이루고 사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고 싶니까? 한 가족에서도 서로 말로 떨어야만 하고... 그래서 항상 내가 말하죠. 말로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말라. 언제나 듣기 좋은 말 하면서 마음이 좋게 서로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살아도 다 못 산다. 이상에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천국이요, 이상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지옥인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듣기 싫은 소리 서로 하지 말고 안으로 굴러라

이겁니다. 안으로 굴러 놓으면 그 사람, 아까 그 꽃가루가 가서 총을 죽이듯이 바로 내 마음에서 그 마음속으로 마음이 들어가서 그 나쁜 마음은 다 사라지고 녹아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왜 나쁜 말을 거죽으로 들어대고 해야 되느냐 이 소립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장사를 하거나 또는 어떠한 일을 하고 사는 과정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데도 말 없이 말을 하라 이겁니다. 생각으로써 모든 일들을 해 나가고 하지, 기껏 해 놓고도 말 한마디로써 그 쪽박을 깨뜨리는 수가 많습다. 말 한마디로써, 마음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해 놓고서는 딱하니 말 한마디 잘못 불쑥 해 가지고는 그냥 흠뻑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일을 망쳐 놓습니다. 이걸 속뚫뚫이가 돼야지 거죽 뚫뚫이가 돼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뚫뚫한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 마음, 정직하고 건실하고 착실한 사람으로서 융통성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 이래야만이 이것이 진짜 불범이며 생활 불교며, 우리는 그 마음속에서 호국 불교도 나가고 호국 정

고, 낫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 있게 낫는 지 안 낫는지 의심이 갑니다.

답변 주인공에다 어떻게 놓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내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내놔 보시죠. 지금 말씀하신 거요, 어떠세요? 내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낫진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모두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이 오신 발자취를 들고 오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고 계십니까? 살아 오신 거를 들고 계십니까, 모든 거요? 그 계습의 관념이지, 들고 계십니까?

그런데 뭘 또 '들었다, 놓쳤다, 못 낫다' 이러십니까? 여러분이 이 물질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습, 관념에서 벗어나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 고정됨이 없이 놓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한 것도 과거요, 그것도 벌써 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걸 놓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장가들어서 사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애가 "아버지!" 하고 탕뻘을 때에 "그

다. 그런데 제가 근기가 부족해서인지 24시간 분별하지 않고, 오직 근본으로만 들고 내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자괴감도 들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분별심을 내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할지요?

답변 우리가 이 인간으로 살면서도 마음을 잘 쓰면, 잘 쓴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겪어 보니까 그걸 너무도 잘 알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보고 들이는 것도 자기가 하는 거고, 이 속에서 나오는 것도 자기한테서 나오는 건데 그거를 분리해서 자꾸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도 '주인공 속에서 나오는 것은 맞고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실에 생각하고 가는 것도 그놈에서 나오는 거요, 이 속에서 나오는 것도 그놈이 하는 겁니다. 들고 내는 게 그놈이 하는 건데...

그것은 언제 왜 그러냐. 이 속에서 스스로 나오는 참자기의 뜻이 아니라면 겉으로 보고 사랑으로 돌리는 게 어드워. 요렇게 요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할

았는데, 석 달 기한을 하고 일을 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스님, 거길 가니까요, 애 아빠가 그냥 먹질 못하고 일은 고되고 그래서 아주 그냥 뭐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 그래서 그냥 갔던가?" 그러니까 "네."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어요? 여자로서, 아내로서 남편에게, 자식이든지 남편이든지 그걸 불문에 붙이고 그래, 가는데 먹지 못하는 거 번연히 알면서, 일 고되다는 거 번연히 알면서, 여기에서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별 어디가 그래도 예금통장에 조금이라도 넣고 사는 사람이, 그대 맨손으로 그냥 가? 아, 생각해 보세요, 글썄, 아니,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갑니까? 그런 일에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간다면 다른 일은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도대체.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뚜껑과 이 통이, 뚫 그렇게 된 통은 뚫그란 뚜껑이 라이 맞고, 네모가 난 통이면 네모 뚜껑이 맞는다. 그것이 맞지 않는 거라면 세계생생에 이것이, 즉 맞하자면 지옥이니라." 이상이 맞지 않는 부부라면 이런 지옥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업을 짓는 거는 더 말할 수도 없거니와 풀부처도 돌아왔을 땐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이 업 짓는 거는 자기네들이 맞지 않게 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경험을 못하고, 경험을 쌓지 못하고, 물에도 들어가 보고 구멍이에도 들어가 봐야 그 깊이를 아는데,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자기가 체험을 해 보지 않은 데에서 나오는 어두운 마음이에요. 밝은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체험해 보는 데서 무지한 밝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한다' 이런 소리도 연구를 거듭거듭 하면서 얼마만큼 그걸 실패를 해 가면서 연구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하면서도 자기가 자기의 뜻을 보려고 테스트하는 건 모르고, 어떠한 게 나타나면 그거 또 돌로 보는 겁니다. 아, 어디서 나올 틈이 없어요. 불을 것도 없고 뒤 불일 것도 없는데 어디에서 불어 들어오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자리에 다시 놓으면 될 것을, 이걸 돌로 보니까 집안이 험련없이, 자기 마음의 분신이 이것저것 생겨 가지고는 온통 집안에 우환이 끊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걸 태워 버리고, 우환을, 가난 또는 병고 이런 것을, 인연 업보 유전, 이런 것을 모두 때 버리려면 나한테 나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불을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 자체도 없고 너 자체도 없고, 너다 나다도 없고 중생 부처도 없고, 이것은 이름이 부처요 이름이 중생일 뿐이다."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내면의 진의를 몰라서 그냥 바깥으로 끄달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사람이 왜 죽은 행을 합니까!

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생동력 있게 살아 있는 행동을 해야죠.

그럼으로써 항상 흐뭇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신도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여건을, 자유권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또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조절을 해서 우리 국가를 지킬 수 있는 호국 정신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 하나가 나 하나를 이끌어 가지고 갈 줄 모르고 내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없는 그러한 좁은 마음으로 어떻게 사회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꼭 뚫으로만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음 가짐가짐을 잘 갖는다면 우리 국가를 지킬 수도 있고 세계를 조절할 수도 있고 우주를 조절할 수 있어서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대무변한 한 점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항상 끄달려 가면서 앞뒤를 재지 못하고 이렇게 나가야 합니까? 우리는 힘이 없이 말을 하고, 들은 사이가 없이 듣고, 오고 감이 없이 가고 오는데...

났는지 안 냈는지 의심이 갑니다

질문 큰스님 가르침대로 모든 걸 한마음에 다 믿고 놓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미혹해서 그런지 지금 제 자신이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참 믿었

래." 그리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게 금방 없 어지고 금방 남편이 돼 버렸습니다. "애 아무 개야! 아무개 있냐? 나 좀 보자." 아, 이러면 아들이 금방 됐습니다. 또, 남편이라는 게 없 어졌습니다. 그러니 어떤 거 될 때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공한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니 놓고 돌아가는 거지 그제 들고 돌아가는 겁니까, 예? 뭘 놓지 못하고 뭘 들고 다니고 뭘를 그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온 그 관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좀 그 관념 속에서 벗어나시면 여러분이 훌륭하게, 이 진리를 탐구하고 실험자로서 체험해 가면서 연구할 겁니다. 아, 이 종교라는 게 그대로 그냥 멋진 거예요. 아주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것이 멋진 이 종교, 불교란 얘깁니다.

분별심을 내지 않고 살아가려면

질문 근본에 항상 집중하려고 하고 오직 근본에 들고 내는 생활을 해 나가려고 노력하지만, 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말하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게 됩니

생각이 돌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돌질 않으니 어떡합니까, 글썄? 하나하나 이견 말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아이, 스님!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 어떡합니까?" 이러면 야, 내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분명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생각이 엉뚱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생각 자체가, 어떻게 사람으로 돼 가지고 생각이 그렇게 엉뚱하게 안 나느냐 말입니다. 간단하게 해치울 것도, 간단하게 해치우면서도, 그것이 바로 거기서, 두 놈이 아니고 그 한 놈도 없다고 만날 말을 하는데도 아이, 그걸 두 놈으로 갈라놓고선 이견 사랑이고 이거는 내 주인공이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주인공이 하는 것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 도리를 알아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래야만이 사방이, 사방천이 밝아서, 참 스스로 오온이 밝아서, 칠보가 정갈 가득 차 있어서 내가 그대로 자유권을 얻고 해야, 이것이 바로 시민권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바로 용을 한다는 얘깁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는 항상 이게 끄달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끄달리는 중에도 또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누가 남편이 일을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탁입니다.
-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 × 65 × 135mm 15만원
[중] 110 × 80 × 160mm 20만원
[대] 140 × 95 × 200mm 25만원

■ 재질 : 청동

판매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장엄괘불

- 괘불 크기 : 가로 200cm × 세로 300cm
- 구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물+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 (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매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